HOME > 전국 > 서울

강북문화재단, 놀이로 배우는 문화예술교육 '강북 예술캠퍼스' 운영

전진홍 기자 | 승인 2026.10.20 11:16

> 11월 3~14일 미술·연극 놀이 6개 강좌 개설…초등학생·성인 대상 20일부터 수강생 모집



강북예술캠퍼스 포스터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서울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이 어린이와 성인들이 놀이를 통해 예술을 경험하고 창의적인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강북문화재단은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강북문화예술회관 2층 강북문화대학에서 문화예술교육 특강 '강북 예술캠퍼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역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인 '예술놀이 기획자 과정'의 성과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과정을 수료한 연극과 미술 분야 예술가 12명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한다.

강좌는 미술 놀이와 연극 놀이 등 2개 분야, 총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자들이 직접 만들고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예술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미술 놀이에서는 영화와 미술을 활용한 색채 표현, 자신만의 이야기 만들기, 동화 속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 등이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식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작품으로 구현하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연극 놀이에서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돼 상황을 표현하거나 몸짓과 대사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활동을 경험한다. 이를 통해 상상력과 표현력을 높이고 다른 참여자들과 협력하며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강은 예술적 결과물의 완성도보다 참여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창작 경험에 중점을 뒀다. 놀이와 예술을 결합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과 40대 이상 성인으로, 강좌별 참여 대상이 다르게 운영된다. 수강료는 3000원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강북문화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북문화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이 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놀이 기획자 과정에서 양성한 지역 예술가들의 전문성을 실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진홍 기자

저작권자 © 잡포스트(JOB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